



# 안 치홀트 Jan Tschichold

## 디자인의 혁명, 뉴 타이포그래피

20세기 타이포그래피의 대가라고 불리는 안 치홀트(Jan Tschichold). ‘신타이포그래피’라는 용어는, 안 치홀트 이전까지 당대 혁신적인 여러 디자인들 사이에 공유된 새로운 예술의 비전을 담은 일반적인 서술어에 불과했다. 이 말을 심화시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실천적으로 전개해 특별한 용어로 만든 인물이 바로 선구적 디자이너 안 치홀트이다.

## 타고난 타이포그래퍼 ‘얀 치홀트’

독일의 한 레터링 아티스트의 아들로 태어난 얀 치홀트는 어렸을 때부터 글자에 관심이 많았다.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타이포그래퍼의 길로 들어섰다. 1923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바우하우스 전시회 관람 후 뉴 타이포그래피에 매료되어 1928년 새로운 사상을 인쇄업계에 설명하는 실용적인 책, ‘뉴 타이포그래피’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1925년에 잡지 ‘타이포그래픽 뉴스’에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발표, 체계적 이론정립에도 앞장섰다. 그 이론은 현재까지 전 세계 디자인 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 이론의 기본으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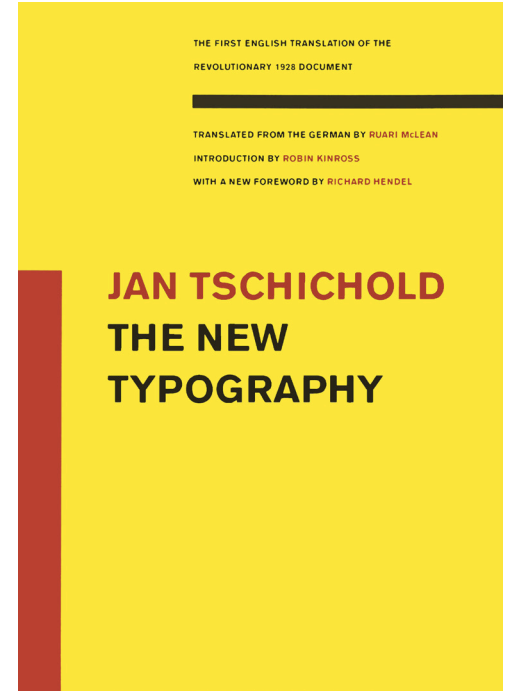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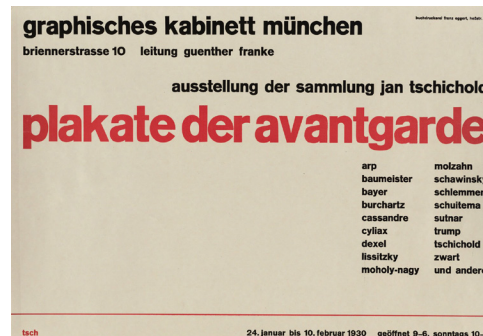
얀치홀트는 뉴 타이포그래피를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중축적 장식에서 탈피한 기능적인 비대칭 타이포그래피의 대표라고 정의했다.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려 노력하며, 전달의 목적, 언어 가치의 강조, 내용의 논리적 유용성, 그리고 가독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 비대칭의 리듬과 현대적 활자인 산 세리프를 사용해 독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 Die Frau Ohne NaMen (1927)

얀치홀트가 포이부스-팔라스트 영화관을 위해 디자인한 영화 ‘이름없는 여인’의 포스터에는 1920년대 뉴 타이포그래피의 기하학적 특징 일체가 구성되어있다.



## Plakate der Avantgarde (1930)



## The New Typography (1928)

얀치홀트는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정리한 ‘신 타이포그래피’를 출간했다. ‘타이포그래피 원리’가 인쇄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매뉴얼이라면, 신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이너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타이포그래피 기술 교본이었다.

# Columbia Architecture Planning Preservation

Lectures

6:30pm  
Auditorium  
Avery Hall  
Donors open to  
the public  
8:15pm

## Grosz

23  
Monday

**Edward Grosz**  
Director, Institute of Critical  
and Cultural Studies, Australia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Dilemma and Thoughts"

## Hadid

10  
Friday

**Zaha Hadid**  
Architect  
"Bent Space"

## Denari

22  
Wednesday

**Neil Denari**  
Architect  
"Designing Los Angeles:  
A Modernist's Perspective  
on the City as a Productive  
Environment"

## Alsop

1  
Wednesday

**William Alsop**  
AIA, USGBC, LEED, FRCG  
"Architecture as a  
Productive Environment"

## Boigon

8  
Wednesday

**Brian Boigon**  
Director, GB Studio  
"Sprinkles"

## Grumbach

29  
Wednesday

**Arnold Grumbach**  
Architect, University of Texas  
"Designing the Street: A  
Productive Environment"

## Libeskind

12  
Wednesday

## Davis

17  
Monday

**Daniel Libeskind**  
Architect, Los Angeles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Dilemma and Thoughts"

**Mike Davis**  
Professor of Architecture,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Architecture

**Bruce Davis**  
Director, Institute  
of Architecture  
Los Angeles

**Christen Robert**  
Architect, University of Texas  
"Designing the Street: A  
Productive Environment"

## Hubert

19  
Wednesday

Exhibitions  
Spring 1995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In the Night-City:  
Photographs  
by Lynn Saville

February 6-25  
400 Level  
Avery Hall

Two Photographic  
Promenades  
The Villa La Roche-  
Jeanneret and  
The Villa Savoye:  
Photographs  
by Elizabeth Donoff

February 13-March 11  
100 Level  
Avery Hall

Architecture  
Through Photography:  
Perceptions of  
Modernism

March 20-May 7  
Bentley Hall  
Bentley Hall

Architecture  
as Subject:  
Photographs  
by Cerwin Robinson

March 27-May 1  
400 Level  
Avery Hall

A Recent View  
of Architecture:  
Photographs  
by Paul Warchol

April 3-May 7  
400 Level  
Avery Hall

End of Year  
Student Exhibition

May 13-26  
Avery and Bentley Halls

비대칭 레이아웃은 뉴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이다. 비대칭 레이아웃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은 단조로운 기능적 디자인을 보완하는 윗동적 표현이다. 비대칭을 통한 동적 균형은, 디자인 중심에서 나누어진 두 면이 서로 겹쳐지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상으로는 불균형해도 레이아웃을 통해 균형을 이루며 개성과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균형을 통해 안정된 레이아웃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나, 구성 요소 사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정감도 깨진다.

Willi Kunz,  
Columbia University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Poster  
(1992)

## 디자인 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자인 서적. 뉴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작가들과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교양 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양을 줄이고 이미지의 비율을 늘렸다. 더불어, 독자가 최대한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그래픽 요소는 배제했다. 또한 프레임의 크기와 방향이 다양한 뉴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너비가 긴 형태의 루트2 비율을 따른 프레임(252 x 175mm)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서적의 본문 서체는 세리프체를 사용하지만, 뉴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만큼 본문 서체도 산세리프체를 선택했다. 여기에 사용한 '본고딕'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줘 뉴 타이포그래피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알맞으며, 한글과 영문 폰트 모두 완성도 높게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가로 방향 프레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변화를 시도했다.